

승찬, 회식이 끝난 금요일 밤, 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은 이미
끊겼고, 버스를 타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다. 거리에는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하지만 손을 흔들어도 택시는 쉽게 잡히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꺼내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 현재 위치가 자동으로 설정되고, 목적지를 입력하니 예상 요금과
이동 시간이 표시된다. '호출하기' 버튼을 누르자 몇 초 만에 근처의 택시가 배정되었다.
화면에는 기사님의 사진, 차량 정보, 예상 도착 시간이 뜬다. 잠시 후, 등록된 차량이 정확한
위치로 다가오고 있다는 알림이 온다. 택시가 도착하자 문을 열고 탑승한다. 기사님은
친절하게 목적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부드럽게 출발한다. 앱에서는 실시간 이동 경로가
지도 위에 표시되며, 예상 도착 시간이 계속 업데이트된다. 중간에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안심 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사용하여 가족에게 실시간 위치를 공유한다. 창밖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안전하고 빠르게 집으로 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든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앱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지갑을 꺼낼 필요 없이, 등록된 카드로 손쉽게 결제가 완료된다.
집 앞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제야 하루가 마무리된 느낌이다. 지친 하루의 끝, 택시
앱 덕분에 안전하고 편안한 귀가가 가능했다.